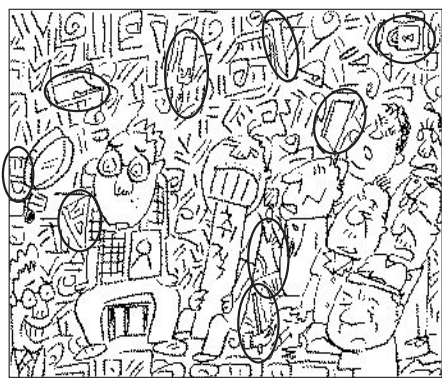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63 >



찾아보세요 열대어, 구두, 프라이팬, 은행잎, 바늘, 갈매기, 스푼, 송사리, 서툰족



최고의 건망증

한 여자 손님이 택시를 타자마자 손님이 아저씨, 운암동이요. 택시기사: 예 알겠습니다. 잠시후 손님: 저, 아저씨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했죠? 택시기사: 아, 깜짝이야, 언제 댔수?

지난주 정답

자물쇠, 망치, 촛불, 알파벳 A자, 대절, 열대어, 뭇, 서툰족, 편축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 당첨자: 최은지 <보성군 보성읍> 김영희 <나주시 송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3월 9일 최초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 탄생

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인 고산(30)·이소연(여·28)씨가 7일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GC-TC·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에 입소, 우주인 훈련에 들어간다.
2008년 2월까지 모두 1천800여시간에 달하는 훈련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
이들이 훈련을 받게 되는 '별의 도시'라는 의미의 즈보즈니야 고로독에 위치하고 있는 가가린 센터는 지난 1961년 4월 12일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한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 지난 1968년에 세워졌다. 훈련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도 가가린 동상이다.
유리 가가린은 지난 1934년 3월 9일 스톨렌스크(州) 콜호스 구성원의 집안에서 태어나 사라토프의 공업중등기술학교 재학 중 항공 클럽에서 비행 기술을 익혔고 오렌부르크의 항공 학교를 졸업한 뒤 공군에 입대했다.



<가가린>

이후 게르만 티토프를 제치고 우주인으로 선택돼 인류 최초의 유인(有人)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에 탑승, 108분간 우주 여행에 성공해 최초 우주인으로 이름을 남겼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언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며 크게 보도했고, 그가 우주에서 지구를 감상하며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고 한 말은 역사에 길이 남아있다.
가가린은 지구로 귀환한 뒤 중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했고 우주비행사대 대장장 등을 지낸 뒤 대령으로 진급하는 등 우주 영웅으로 대접받았지만 1968년 3월 27일 결국 비행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해 크렘린궁에 묻혔다.
현재 가가린 센터는 비행 시뮬레이터, 실험실 크기의 우주선 모형, 고중력 가속도 훈련장치 등 우주비행사의 훈련 및 연구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우주인 양성의 메카'로 불린다.
지금까지 가가린 센터에서 배출한 우주인은 27개 국가에서 195명. 구 소련과 러시아가 92명, 미국 72명, EU 대표 14명 등이다.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379명이지만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100여명이 탈락했다.

우주선 주 조종사가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9~12년에 이른다.
한국 첫 우주인 후보인 고산·이소연씨도 7일부터 1천 800여시간에 이르는 험난한 훈련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1명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로 나가게 되는 순간은 한국의 우주 과학 기술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날이다.
우주선 주 조종사가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9~12년에 이른다.
한국 첫 우주인 후보인 고산·이소연씨도 7일부터 1천 800여시간에 이르는 험난한 훈련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1명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로 나가게 되는 순간은 한국의 우주 과학 기술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날이다.
우주선 주 조종사가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9~12년에 이른다.
한국 첫 우주인 후보인 고산·이소연씨도 7일부터 1천 800여시간에 이르는 험난한 훈련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1명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로 나가게 되는 순간은 한국의 우주 과학 기술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날이다.



한국 최초 우주인이 훈련을 받게 되는 가가린 우주센터.

/김지을기자 dok2000@

뉴스퀴즈

54. 한국 입양아 출신 미국 스키 스타가 최근 한국에 사는 친아버지와 26년만에 상봉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와 함께 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를 확인한 이 선수는 지난해 토리노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스키 남자 모굴에서 동메달을 딴 뒤 한국계 입양아임을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토비 도슨 ② 하인스 워드
③ 우르술라 메이스 ④ 소냐 크로퍼드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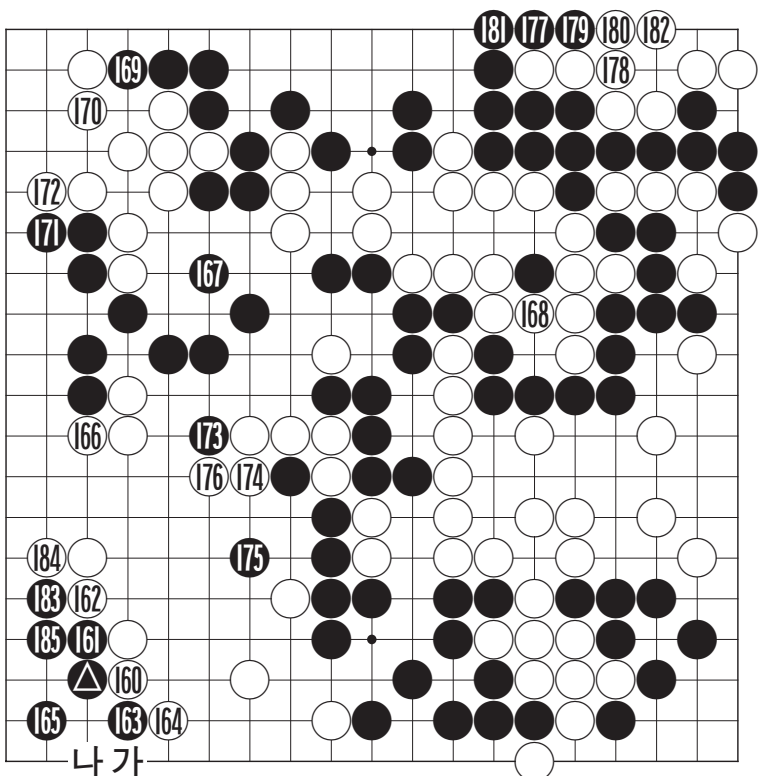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용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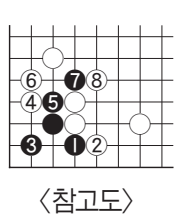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6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7일(음 1월 18일 庚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제35기 가왕전 2부 명인전 예선회전 이길 수 없는 패 10보(160~185)
백 조훈현 9단 흑 조경호 초단



<참고도>

백의 유일한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좌하귀에 흑▲로 쳐들어 간 장면이다. 이런 곳은 상식적으로 볼 때 흔히 패가 난다. 그러나 그것도 수순이 정확해야 한다.
백 60 때 흑 61로 먼저 하나 밀어 둔 것이 확실한 수순이었다. 161로 바로 '참고도'의 흑 1로 짓고 3으로 호구에 패를 노리는 것은 불리한 형세인 만큼 맛이 나쁘더라도 백 4, 6으로 잡으러 올 확률이 높다.
형세가 유리한 조경호씨는 만에 하나라도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것

바둑소식

루이, KBS바둑왕전 2회전 진출
루이 나이웨이 9단과 김지석 3단이 지난 5일 KBS신관에서 열린 KBS바둑왕전 본선 1회전에서 각각 이상승 6단, 박승철 5단을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이날 승리한 루이 9단은 13승 2패로 목진석 9단, 이영구 6단의 뒤를 이어 다승 부문 공동 3위에 올랐으며, 김 3단은 12승 2패로 5위에 올랐다.
루이 9단과 김 3단은 본선 2회전에서 각각 전기대회 우승, 준우승자인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과 격돌한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2천만원(준우승 600만원)이다. 우승, 준우승자는 2008년 TV아시아 선수권전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55> 오하유우 이혼고 <855> 니하오 풍구워 <46> 한자 이야기 <473>

Good Morning English section with the title 'I need a change of pace' and a dialogue between A and B about feeling the need for change.

Section about Korean cuisine with the title '韓國料理は刺激の強いものが多いでしょう' and a dialogue about the spiciness of Korean food.

Section about weather with the title '今天天气真不错' and a dialogue about enjoying the weather.

Section about the Chinese character '부' (부) with the title '부(부)의 부(부)의 부(부)의' and an explanation of its various meanings.